

# Kodex<sup>ETF</sup>와 함께 만드는 Viewtiful Week

조수민 책임매니저  
Vol.11 2024.12.17

## Executive Summary

- FOMC를 앞둔 경계감 속 개별 호재가 발생한 테마 장세 전개되며 나스닥은 4주째 강세
- 19일 12월 FOMC: 내년 물가 전망이 포함된 경제전망과 점도표 확인 필요
- 빅이벤트 소화 과정 속 미국과 한국 모두 개별 호재 중심의 테마 장세 예상

## ●●● 이번 주엔 무엇을 볼까

FOMC를 앞둔  
경계감 속  
금리가 부담으로 작용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FOMC를 앞두고 물가 경계감이 재부각되며 시장금리가 상승한 게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나스닥은 브로드컴의 호실적과 알파벳을 필두로 한 양자컴퓨팅 테마가 상승하면서 4주째 강세를 이어갔다.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해 주간단위로 각각 14.1bp, 24.4bp 상승한 4.2%, 4.4%로 마감했다. 한편, 달러인덱스(DXY)는 캐나다중앙은행(BOC)과 스위스중앙은행(SNB)의 50bp 인하로 상승 압력을 받으며 0.95p 상승한 107.0p로 마감했다(2024년 12월 13일,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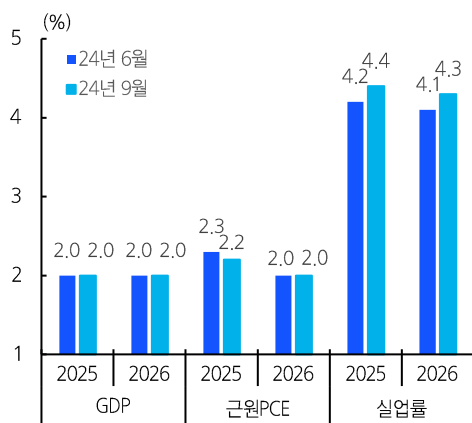
11월 CPI:  
주거비 둔화가  
상품 물가 상승세를 상쇄

11월 헤드라인과 근원 CPI는 모두 전월비 0.3% 상승해 예상에 부합했다. 식품, 에너지, 근원 상품 등 물가 우려를 자극하는 세부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의 전월비 상승률이 10월 0.38%→11월 0.34%로 둔화되면서 안도감을 제공했다. 한편, 11월 생산자물가(PPI)는 전월비 0.4% 상승하면서 예상을 상회했다. PCE 가격 산출에 활용되는 세부 항목들은 대체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FOMC를 앞둔 경계감에 시장 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했다.

올해 마지막 빅이벤트:  
12월 FO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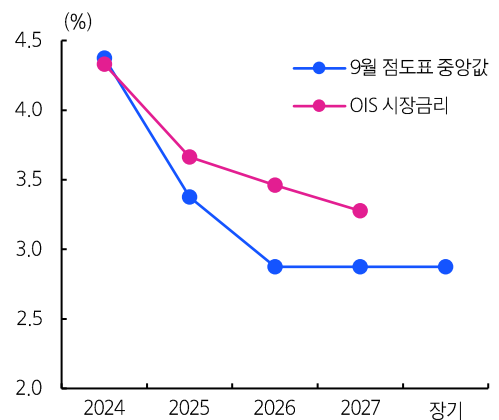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12월 FOMC(12/18)다. 이번 FOMC에서는 경제전망과 점도표도 함께 공개된다[그림 1]. 시장은 2025년 금리인하폭을 9월 점도표가 시사한 4회(100bp) 인하보다 작은 2회(50bp)를 가격에 반영 중이다. 연준이 내년 50bp 인하보다 작은 금리 인하폭을 시사할 경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그림 2]. 마이크론 실적(12/18)도 관심 대상이다. 지난주 브로드컴의 호실적으로 맞춤형 AI 칩 테마가 주목을 받았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할 경우 업종 전반에 대한 이익 상향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BOJ 금정위(12/19)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2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3월에 인상하자는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기대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달러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1] 경제전망 수정 여부 확인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그림2] 점도표: 25년 금리인하폭 확인 필요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삼성 Kodex View

연준: 물가보다  
고용에 방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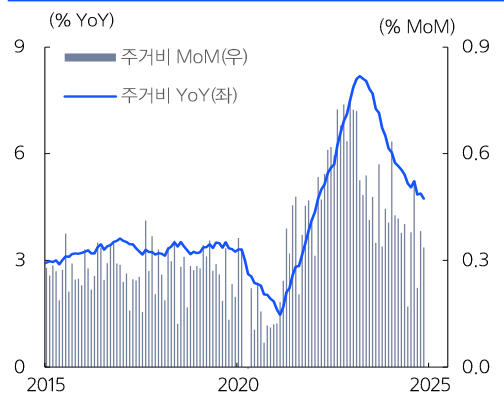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고용 시장은 둔화되고 있는 한편, 물가는 반등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특이점은 내구재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해당 수요가 미래 가격 상승을 대비하는 가수요인지 현재로서는 분간이 어렵다. 반대로, 물가의 하방경직성을 높여왔던 주거비는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그림 3]. 주거비 둔화세로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연준은 물가보다 고용에 방점을 둔 통화정책을 운영할 공산이 크다.

미국: 당분간 개별 호재가 발생하는 테마 장세 예상

올해 미국 증시를 견인했던 엔비디아가 약세 압력에 노출되면서 미국 증시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된 상태다[그림 4]. 지난주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AI 소프트웨어에서도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 반대로, 테슬라를 필두로 한 자율주행과 알파벳 중심의 양자 컴퓨팅 테마에 수급 풀림 현상이 나타났다. 당분간 차기 주도주 모색 과정에서 개별 호재가 발생하는 테마 중심의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정국 불안 여파로 매도 압력에 노출됐던 코스피는 지난주 12개월 Trailing PBR 0.83배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을 시도 중이다. 단, 코스피 2025년 이익이 지난 8월 이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기본으로 상정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기존 밸류업지수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5개 종목을 신규 편입하는 특별 변경을 결정했다. 3,000억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도 조성키로 결정하면서 해당 테마와 개별 기업들의 하방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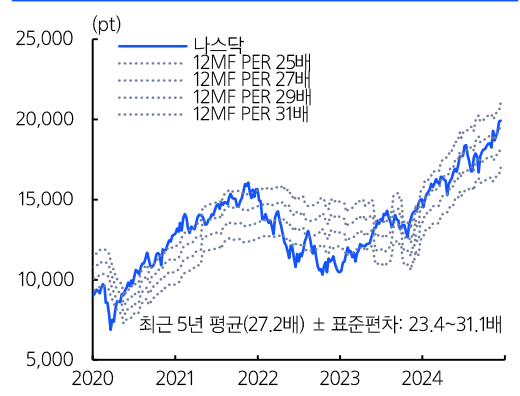
한국: 이익 모멘텀 부재로 박스권을 기본 가정으로 상정할 필요

[그림3] 주거비 둔화 흐름 지속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그림4] 13일 나스닥: 12MF PER 29.3배 위치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Viewtiful Week를 위한 삼성 Kodex ETF 3

**01** Kodex 미국나스닥100 데일리커버드콜OTM (종목코드:494300)

# 나스닥100 데일리 1%OTM 콜옵션 100% 매도 전략 월배당 ETF

- 매일 1%까지 시장 상승 참여 + 옵션 프리미엄 수취 추구
- 연간 분배한도 최대 20%(월간 1.67%), 옵션 프리미엄 분배한도 초과분은 재투자
- 총보수 : 연 0.25%(운용 0.21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1%),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02** Kodex 미국시테크TOP10 (종목코드:485540)

# AI 빅테크 TOP 3(Nvidia, Microsoft, Apple)와 AI 신흥강자에 모두 투자하는 ETF

- AI 빅테크 TOP 3와 AI 신흥강자(AMD, Broadcom, TSMC) 등 총 10개 종목에 투자
- 주요 투자대상: Nvidia, Microsoft, Apple, Alphabet, Amazon, Broadcom 등 10개 종목
- 총보수 : 연 0.30%(운용 0.26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1%),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03** Kodex 금융고배당TOP10 타겟위클리커버드콜 (종목코드:498410)

# '고배당 금융주+위클리 커버드콜'로 '고배당+월배당+비과세'가 가능한 ETF

- 옵션 매도 비중 조절(30%)로 추가 상승에 참여+ Monthly 대비 높은 옵션 프리미엄 수취
- 주요 투자대상: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10개 종목
- 총보수 : 연 0.39%(운용 0.359%, AP 0.001%, 신탁 0.02%, 사무 0.01%),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삼성자산운용, 2024년 12월 17일 기준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